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74
----------	------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진중오·서천호·박충권
박정하·곽규택·최보운
정성국·서명옥·김형동
한지아·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석궁 등의 제조·판매·임대·소지·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결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

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